

# 元雜劇「猿聽經」의 度脫構造

- 통과의례를 중심으로\*

金光永\*\*

## <目 次>

1. 서론
2. 분리의례
3. 전이의례
4. 통합의례
5. 결론

## 1. 서론

원잡극 「원청경」(정식 극명은 「龍濟山野猿聽經」)은 無名氏의 작품으로, 원숭이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특이한 것이다. 내용 또한 상당히 특이한 것으로, 원숭이가 나무꾼인 樵夫와 과거에 급제한 문인으로 신통한 변신을 하면서, 결국에는 修行이 깊은 禪師의 도움을 받아 得道하고 解脫하여 극락세계에 이른다는 불교극이다. 이런 점에서 「원청경」은 원숭이가 작품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현존하는 희곡으로는 가장 빠른 것이며, 그 중의 원숭이 형상은 매우 생동적이어서 「西遊記」 중의 손오공 형상과 상당히 비슷하다. 이렇듯 원숭이가 작품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것은 기실 불교의 전래와 함께 인도에서 왔다고 여겨진다. 그것은 고대 인도에서는 원숭이 숭배사상이 강하여 유명한 敘事詩인 「라마야나」에는 중국의 손오공에 해당하는 하누만이 중요한 각색으로 묘사되어 있기 때문이다.<sup>1)</sup>

\* 본 연구는 2016년도 광주대학교 대학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광주대학교 국제언어문화학부 교수

작품의 내용 전개에 있어서 「원청경」은 원잡극에서 상당히 성행했던 도탈극이다. 度脫이라는 용어는 濟度와 解脫를 결합하는 의미로서, 修行이 깊은 禪師나 神仙이 도탈자의 신분으로서 수행이 얇은 피도탈자를 生死의 고통에서 해방시키고 생명의 참뜻을 깨닫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도탈극이라고 말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神仙道化劇을 연상하게 되는데, 이것은 전체 도탈극 중에서 도교적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도교도탈극이 불교도탈극에 비해 훨씬 많은 분량을 차지하기 때문이며,<sup>2)</sup>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원청경」은 불교적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불교도탈극이다. 그런데 기실 도탈극이란 용어는 고대에 중국에서 사용되던 용어가 아니라 일본의 青木正兒가 처음 사용한 것이다. 그는 자신의 『元人雜劇序說』에서 원대의 잡극을 분류하면서 明代 朱權이 지은 『太和正音譜』 중의 雜劇十二科를 참조하였는데, 신선도화극 종류의 작품들을 도탈극과 謫仙投胎劇 두 가지로 나누었다.<sup>3)</sup> 그런데 朱權이 지은 신선도화극 중에는 도교적인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는 도교도탈극이 있을 뿐만 아니라 불교적인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는 불교도탈극도 포함되어 있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이후에는 도탈극의 의미가 확대되어 仙佛이나 佛道와 인연이 있는 凡人이 神仙이 되거나 成佛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희곡 작품을 도탈극이라고 불렀다.<sup>4)</sup>

원잡극 중의 도탈극은 도교도탈극이거나 불교도탈극을 막론하고 독특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먼저 작품 중에는 반드시 도탈자와 피도탈자가 등장하여야 한다. 그리고 작품의 전체적인 구조는 도탈자가 피도탈자를 도탈시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며, 피도탈자는 도탈 과정 중에 수많은 고통과 육신의 사망 등의 시련을 겪은 후 새로운 생명의 세계에 진입하는 재탄생의 양상을 보여준다. 그리하여 작품의 전체적인 구조는 대개 도탈 이전단계-도탈 시행단계-도탈 이

1) 薛克翹, 「中印猿猴故事散論」, 『南亞研究』, 2005年1期.

2) 일례로 논자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지만 신선도탈극에는 「升仙夢」 「城南柳」 「岳陽樓」 「黃梁夢」 「任風子」 「胡蝶夢」 「金童玉女」 「竹葉舟」 「劉行首」 「玩江亭」 「藍采和」 「誤入桃源」 「邯鄲店」 등 13편이 있고, 불교도탈극으로는 「度柳翠」 「忍字記」 「東坡夢」 「猿聽經」 등 4편이 있다. 溫小騰, 「淺析元雜劇中的度脫劇」, 『大慶師範學院學報』, 第26卷 第4期, 2006.

3) 青木正兒 著, 隋樹森譯, 『元人雜劇序說』, 臺灣, 長安出版社, 1976, 32쪽.

4) 溫小騰, 「淺析元雜劇中的度脫劇」, 『大慶師範學院學報』, 第26卷 第4期, 2006.

후단계리는 세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본 논문의 대상인 「원청경」도 이러한 세 단계의 과정으로 전체적인 도탈구조가 이루어져 있다.

통과의례라는 용어는 본시 독일 출신의 네덜란드계 민속학자로 주로 프랑스에서 활약한 A. 반 겐넵(Arnold van Gennep)이 1909년 『통과의례』라는 책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그에 의하면 개인은 자신의 탄생과 결혼 및 죽음 등의 시기에 사회 내에서의 신분 변화와 새로운 역할을 획득하는 과정 중에 일정한 인생의례를 행하며, 아울러 다른 영역을 통과하거나 국왕이나 족장의 취임 및 여러 종교행사에 도 반드시 일정한 의례를 행하는데, 그는 이러한 과정 중에 행하여지는 의례를 통과의례라고 명명하였다. 그의 연구에 의하면 半文明的인 정신세계에서는 모든 행위들이 神聖함과 철저히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는 의식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에서는 개인생활에서의 모든 변화가 신성함과 世俗 사이의 작용과 반작용을 포함하며, 이러한 작용과 반작용을 통제하고 조절함으로써 전체 사회가 피해를 받거나 혼란을 당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sup>5)</sup>

겐넵은 여러 종족과 민족의 통과의례를 분석하면서 이들 통과의례가 전체적인 과정 중에서 세 단계로 이루어졌음을 밝히었으니, 분리의례-전이의례(과도의례)-통합의례가 바로 그것이다.<sup>6)</sup> 그리고 그에 의하면, 이들 세 가지 의례는 구체적인 사례에서는 똑같이 중요하거나 똑같이 정교하게 행하여지는 것은 아니어서, 일례로 분리의례는 장례식에서 더욱 뚜렷하고, 통합의례는 결혼식에서 뚜렷하며, 전이의례는 임신·약혼식·入社式에서 특히 중요하다.<sup>7)</sup> 그런데 겐넵의 이러한 통과의례 구조는 원잡극 중 도탈극의 도탈구조와 상당히 흡사하다. 먼저 통과의례와 도탈극은 모두 본질적으로 종교적 신성함과 결부되어 있다. 다음으로 통과의례와 도탈극은 그 전체적인 과정에 있어서 비슷한 성격의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통과의례와 도탈극 중 두 번째 단계에서는 통과의례의 대상자나 도탈극의 피도탈자가 모두 고통과 시련을 당하는 과정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도탈극 「원청경」의 도탈구조를 분석함에 있어서, 본고에서는 서양에서 이미 이룩한

5) A. 반 겐넵 著, 金京秀 譯, 『통과의례』, 서울: 을유출판사, 1994, 29쪽.

6) 상계서, 40쪽.

7) 상계서 40-41쪽.

학문적 성과인 통과례의 관점을 사용하고자 한다.

켄넬의 통과례 이론은 이후 인류학과 민속학 및 종교학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일례로 현대 종교학자로 유명한 M. 엘리아데(Mircea Eliade)는 자신의 『성과 속』 및 『신화·꿈·신비』라는 저서에서 통과례 이론을 종교론적으로 재해석하였으며,<sup>8)</sup> 상징인류학을 창안한 빅터 터너(Victor Turner)는 『제의에서 연극으로』라는 저서에서 통과례 이론을 새롭게 해석하여 발전시켰으며,<sup>9)</sup> 세계적으로 상상력 연구 분야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프랑스 그르노블학과의 일원인 시몬느 비에른느(Simone Vierende)는 『통과제의와 문학』이라는 저서에서 통과례 이론을 종교와 문학에 적용하며 해석하였다.<sup>10)</sup> 이에 본고에서는 이들의 이러한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하여 불교도탈극인 원잡극 「원청경」의 도탈구조를 살피고, 아울러 그러한 도탈구조 속에 담긴 문학적·종교적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

## 2. 분리의례

통과례의 첫 번째 단계인 분리의례는 개인이 종래의 지위나 상태로부터 분리되는 형태로 행하여져서, 가령 죽음을 상징하는 행위를 수반하거나 여행을 떠나거나 마을에서 떨어진 집에 틀어박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곧 초입자들은 새로운 사회로 통합되기 위하여 이전의 사회로부터 분리되며, 이전 사회와 관련해서는 그는 죽은 셈이 된다.<sup>11)</sup> 그러면 이러한 분리의례의 성격을 핵심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빅터 터너의 다음 문장을 살펴보자.

부족사회의 입사의식은 종종 그 제의의 주체들을 그 사회로부터 육체적으로 분리시키는 것으로 특징지어진다. ..... 어떤 부족들에 있어서는 입사

8) M. 엘리아데 저, 이은봉 역, 『성과 속』, 서울: 한길사, 1998.

M. 엘리아데 저, 강읍섭 역, 『신화·꿈·신비』, 도서출판 숲, 2006.

9) 빅터 터너 지음, 김익두 옮김, 『제의에서 연극으로』, 서울: 현대미학사, 1996.

10) 시몬느 비에른느 지음, 이재실 옮김, 『통과제의와 문학』, 문학동네, 1996.

11) A. 반 켄넬 저, 金京秀 譯, 『통과례』, 서울: 을유출판사, 1994, 130쪽.

의식을 겪어야 하는 소년들이 마을과 집안에서의 정상적인 사회적 상호관계로부터 격리되어 숲 속에서 지나간 기간 동안을 살아야만 한다.<sup>12)</sup>

빅터 터너의 위의 인용문에 따르면, 부족사회의 입사의식이라는 통과의례는 그 제의 의식의 주체들인 통과의례의 주체가 사회로부터 육체적으로 분리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으니, 이는 통과의례에서 분리의례가 사용되는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 통과의례의 주체인 부족의 소년들이 마을과 집안에서 분리되는 것은 그들이 정상적인 사회적 상호관계로부터 격리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분리의례의 모습과 성격이 불교도탈극인 「원청경」에는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알아보자. 「원청경」의 전체적인 도탈구조에 있어서 이러한 분리의례의 모습은 원숭이인 猿猴가 극 중의 주인공인 正末로 등장하는 第2折에 다음과 같이 간략히 보이는데, 그 원문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正末이 猿猴로 분장하고 등장하여 노래한다) ……

【梁州第七】나, 나, 나는 일찍이 瑤池에서 瓊漿酒를 흠쳐 마셨고, 나, 나, 나는 일찍이 蓬萊山에서 신선초를 흠쳐 땀으며, 나, 나, 나는 일찍이 天宮에서 蟠桃를 흠쳐 먹어 騷動을 일으켰지. (正末扮猿猴兒上唱. …… 【梁州第七】我我我, 也曾在瑤池內偷飲了瓊漿, 我我我, 也曾在蓬萊山偷摘了瑞草, 我我我, 也曾在天宮闖了蟠桃)<sup>13)</sup>

위의 인용문에 의하면 극 중의 주인공으로 등장한 猿猴는 神聖한 세계인 天宮에서 世俗의 세계로 쫓겨났으며, 자신이 왜 쫓겨났는지를 노래하고 있다. 그는 신성한 神仙들이 사는 崑崙山의 西王母가 밤마다 베푸는 잔치에서 瓊玉을 녹여 고은 瓊漿酒를 흠쳐 마셨으며, 신선들이 사는 봉래산에서 靈芝와 같은 신선초를 흠쳐 따서 먹었으며, 천궁에서 삼천 년에 한 번씩 열리는 蟠桃를 흠쳐 먹으면서 커다란 소동을 일으킨 죄로 속세로 추방되었다. 불교도탈극인 「원청경」에서 주인공인 猿猴가 위에서와 같은 惡業을 저질렀으니, 인과응보의 교리에 따라 세속으로의 추방이라는 惡果를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하겠다.

12) 빅터 터너 지음, 김익두 옮김, 『제의에서 연극으로』, 서울: 현대미학사, 1996, 43쪽.

13) 隋樹森編, 『元曲選外編』, 第三冊, 中華書局, 1987, 952쪽.

통과의례 중 분리의례의 관점에서 보면, 위의 인용문은 분리의례의 일반적 모습과 비슷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분리의례에 참여하는 제의의 주체가 사회로부터 육체적으로 분리되듯이, 위의 인용문에서는 극 중의 주인공인 猿猴가 신성한 天宮에서 세속의 인간 세상으로 분리되었다. 그리고 통과의례 중의 분리의례에서 의식에 참여하는 주체가 정상적인 사회적 상호관계로부터 격리되어 지내야 하듯이, 위의 인용문 중의 猿猴는 신성한 천궁의 세계에서 추방되어 세속의 세계에서 지내야 했다. 그리고 분리의례에서 숲 속으로의 격리와 같은 새로운 공간으로의 공간이동이 있듯이, 위의 인용문에서도 원후는 聖界에서 俗界로의 공간이동을 하였다.

### 3. 전이의례

통과의례의 두 번째 단계인 전이의례는 과도의례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전이의례가 분리의례에서 통합의례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단계의 의례이기 때문이다. 전이의례의 주체는 이전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에서 벗어나 새로운 질적인 변화를 이룩해야 한다. 그리고 전이의례의 주체가 새로운 질적인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수많은 고통과 고난 및 육신의 죽음과 같은 시련 등을 겪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전이의례는 재탄생을 이루기 위한 시련의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먼저 이러한 전이의례의 성격에 대해 『성과 속』에서 종교론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는 엘리아데의 다음 문장을 살펴보자.

우리는 단지 가입식이라는 것이 고대 문화 단계에서 이미 인간의 종교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가입자의 존재론적 상태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다. 이러한 사실은 종교적 인간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처럼 생각된다. 즉 그것은 원시사회의 인간들이 자연적 생존의 단계에 '주어지는' 것만으로는 자신을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진정한 의미로 인간이 되기 위하여 그는 이 최초의(자연적) 생명으로는 죽어야 하

며, 종교적이고 문화적인 더 높은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이다. ……어떤 민족은 후보자를 매장하거나 새로 판 무덤에 눕혀둔다. ……그들이 겪는 고문은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모두에 공통적인 하나의 의미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고문을 받고 절단된 신가입자는 가입식의 주재자인 악령, 즉 신화적 선조에 의하여 고문되고 잘려지고 끊여지고 구워진다고 믿는 것이다.<sup>14)</sup>

엘리아데는 위의 인용문에서 통과의례 중 전이의례의 핵심적 성격을 종교론적 관점에서 말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고대의 가입식이라는 통과의례는 인간의 종교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특히 통과의례 주체의 존재론적 상태를 완전히 종교론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보았는데, 이러한 질적인 변화는 바로 전이의례의 핵심적 성격이다. 그리고 엘리아데는 종교론적인 질적인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연적이고 생존적인 상태에서 종교적이고 문화적인 더 높은 생명으로 재탄생해야 하고, 또 이러한 종교적 재탄생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고문 등의 시련을 겪어야 하며, 최초의 자연적 생명으로는 죽어야함을 지적하고 있다. 바로 재탄생을 위한 이러한 시련과 죽음은 전이의례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다. 불교도탈극인 『원청경』에는 고통과 죽음을 동반한 전이의례적 시련이 제1절에서부터 제4절에까지 우여곡절하게 묘사되어 있으니, 작품의 도탈과정 대부분이 바로 이 전이의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일반적으로 통과의례 중 가장 격식이 갖추어진 것이 전이의례의 단계로서, 전체 의례과정 중에서 전이의례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설명해주는 사실과 부합하는 것이다.<sup>15)</sup> 그러면 먼저 『원청경』 제1절의 원문을 중심으로 극 중의 전이의례 과정과 그 의미를 살펴보자.

(正末이 나무꾼으로 분장하고 등장하여 말하길): 저는 이 산 아래의 나무꾼(樵夫)입니다. 姓은 余씨이고 이름은 舜夫이예요. 저는 비록 나무꾼이지만 어려서 儒家의 學業을 배웠지요. 家業이 쇠락하고 功名을 이루지 못했으니 어찌 하겠어요. 단지 늘 이 산에서 나무를 채취하며 살지요. 저같은 선비가 공연히 국가를 다스리고 세상을 구할 재주를 지니고서는 여전

14) M. 엘리아데 저, 이은봉 역, 『성과 속』, 서울: 한길사, 1998, 170-173쪽.

15) 시몬느 비에른느 지음, 이재실 옮김, 『통과제의와 문학』, 문학동네, 1996. 20쪽.

히 이렇게 빈궁하게 지내니 정말 서글프네요.(노래한다) ……

【混江龍】周易을 강의하고 誦讀하며, 毛詩와 禮記를 마음 속에 꿰뚫었네. 春秋를 토론하고, 史記를 연구하고 통달했건만,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고 임금을 알현하지 못하구나. ……

【油葫蘆】……충명한 사람은 오랫동안 곤궁하여 한가롭게 지내고, 어리석은 이가 벼슬을 받구나. 십년 동안 바람과 눈보라 속에서 힘들게 공부했건만, 가난한 내가 언제 부귀영화를 누릴지 모르겠구나. (正未扮樵夫上, 云)小人是這山下一个打柴的樵夫, 姓余名舜夫. 小人雖是个樵夫, 幼習儒業, 爭奈家業凋零, 功名未遂, 常只是在此山中採樵爲生. 想俺這讀書的, 空有經綸濟世之才藝, 產的在此窮暴之中, 好是傷感人也呵!(唱) ……

【混江龍】我將周易講誦, 毛詩禮記貫胸中. 春秋討論, 史記研通. 不能勾治國安幫朝帝闕. …… 【油葫蘆】……聰明的久困在閑, 愚蠢的爵祿封. 自俺那寒窗風雪十年凍, 不知俺受貧的却也甚日榮.)<sup>16)</sup>

극 중의 주인공으로 등장한 余舜夫는 본시 원숭이 신분이지만 위에서와 같이 제1절에서는 인간의 몸으로 변신을 하여 나무꾼인 樵夫의 신분으로 등장한다. 그는 비록 지금 미천한 나무꾼의 신분이지만 어려서는 청운의 꿈을 품고서 儒家의 학업을 배워 周易과 禮記 및 春秋와 史記를 익혔다. 그러나 현실 속의 그는 매우 비참하다. 그리하여 그는 위에서와 같이 ‘충명한 사람은 오랫동안 곤궁하여 한가롭게 지내고, 어리석은 이가 벼슬을 받구나’라고 말하면서, 지식분자인 문인으로서 현실에 대한 강한 불만과 자신의 고통을 비참하게 노래하고 있다.

「원청경」은 불교도탈극이어서 불교적 인생관과 세계관을 그 기반으로 하고 있다. 불교의 핵심적 인생관을 나타내는 사상으로,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라는 뜻을 지닌 四聖諦(苦諦·集諦·滅諦·道諦)가 있다. 이 사성제에 의하면 인생의 현실은 苦痛으로 충만되어 있고(苦諦), 그 고통의 원인은 煩惱 때문이다(集諦). 또 이러한 번뇌를 없애면 고통이 없는 解脫과 涅槃의 세계에 이르며(滅諦), 해탈과 열반에 이르기 위해서는 八正道를<sup>17)</sup> 실천하여야 한다(道諦). 그리고 범부인 衆生

16) 隋樹森編, 『元曲選外編』, 第三冊, 中華書局, 1987, 949-950쪽.

17) 正見(바르게 보기), 正思惟(바르게 생각하기), 正語(바르게 말하기), 正業(바른 행동), 正命(바른 수단으로 목숨 유지하기), 正精進(바르게 정진하기), 正念(바른 신념), 正定(바르게 마음 안정시키기)



의 현실세계에 가득 찬 고통에는 八苦라고 하여 여덟 가지 고통이 있는데, 生·老·病·死의 네 가지 고통 이외에 愛別離苦·怨憎會苦·求不得苦·五陰盛苦가<sup>18)</sup> 있다. 이러한 불교적 인생관에 의하면 극 중 주인공은 부귀공명을 추구하지만 이루지 못하는 고통인 求不得苦의 고통으로 충만되어 있다. 불교도탈극인 「원청경」의 도탈은 결국 이와 같은 고통으로부터의 해방, 곧 해탈을 이루어 열반의 세계에 진입하는 과정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또 극의 작자는 求不得苦의 고통으로 충만한 지식분자를 극의 맨 앞에 등장시키고 있으니, 이는 당시 元代 지식분자의 현실적 고통을 어느 정도 대변하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겠다.

통과의례 중 전이의례의 관점에서 볼 때 위의 인용문은 전이의례의 일반적 특성과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전이의례의 기본적 특성이 전이의례의 과정 중에 고통과 고난 및 죽음 등의 시련을 반드시 동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시 畜生인 원숭이였던 주인공이 처음부터 나무꾼인 인간의 몸으로 변신하여 주인공으로 등장하였지만, 현실에 대한 불만과 분노로 인한 고통으로 충만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불교도탈극인 「원청경」의 작자는 아마 당시 재능을 지니고도 펼치지 못하는 무수한 지식분자들의 고통을 불교적 해탈의 방식으로 극복하려고 한 것 같다.

전체적인 도탈과정에 있어서 제1절의 내용은 도탈의 시작이다. 극 중 주인공인 나무꾼은 현실에 대한 불만과 분노를 노래한 후, 나무를 채집하기 위해 극의 무대인 龍濟山으로 향하였다 그리고 여기에서 뜻밖에 유명한 高僧인 修公禪師를 만나는데, 이것은 극 중에서 그가 해탈의 기회를 맞이한 것으로 안배되었다. 곧 이후 수공선사는 도탈을 담당하는 도탈자의 신분으로 묘사되고, 주인공인 나무꾼은 도탈의 대상인 피도탈자가 된다. 그러나 주인공인 나무꾼은 세속의 일 때문에 집으로 귀가함으로써 더 이상 수공선사에게서 도탈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제1절을 끝을 맺는다.

제2절은 신선의 신성한 세계에서 추방당한 원숭이인 猿猴가 세속의 인간 세상

18) 애별리고는 사랑하는 가족이나 사람과의 이별하는 고통, 원증회고는 원한이 있고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야 하는 고통, 구부득고는 얻고자 하나 얻지 못하는 고통, 오음회고는 다섯 가지인 色·受·想·行·識으로 인한 고통을 가리킨다.

에서 극 중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특이한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점은 唐代의 高僧인 玄奘이 멀리 天竺에 가서 중국에 불교경전을 도입한 고사를 기록한 宋代의 話本인 『大唐三藏取經詩話』와 비슷하다. 『大唐三藏取經詩話』에는 원숭이인 猴行者가 신선 세계의 蟠桃를 훔쳐 먹다 西王母에 잡혀 花果山에 유배당해 27,000년 동안 돌아오지 못했다는 기록이 있으며, 猴行者가 秀士로 변신하는 내용이 있는데, 「원청경」의 내용과 거의 같다.<sup>19)</sup>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원청경」은 『大唐三藏取經詩話』와 후세 明代 『西遊記』를 잇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어느 정도 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축생의 신분인 猿猴는 극의 제2절에서 축생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佛經의 설법을 듣고 佛道를 이해할 줄 아는 특수한 신분으로 등장한다. 그는 극 중에서 佛堂에 아무도 없음을 확인하고서 불당에 진입하여 修公禪師의 침상인 禪床에서 노닐고, 심지어는 불경의 經文을 읽고 스님들이 입는 袈裟를 몸에 걸치며, 관음보살의 정화수를 마셔보기도 한다. 이러한 점은 물론 원숭이의 장난기 넘치는 행동이기도 하지만, 작자는 주인공인 원숭이를 人格化시킴으로써 自力으로 解脫을 이루고자 하는 모습을 극 중에 안배하였다. 이렇듯 불교도탈극인 「원청경」에서 피도탈자인 주인공의 도탈은 완전히 도탈자인 수공선사에만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곧 「원청경」의 작자는 주인공을 도탈시키는 데 있어서 他力 해탈과 함께 自力 해탈을 동원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극 중에서 원후의 이러한 자력 해탈 방식은 곧 좌절을 당하게 되는데, 도탈자인 수공선사는 원후가 佛堂에서 노닐면서 잘못하여 佛經이나 佛像을 훼손시킬 것이 두려워 원후를 혼내면서 쫓아낸다. 그러면 극 중 주인공인 원후가 죽음의 고통을 느끼면서 쫓겨나는 부분을 원문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正末이 猿猴로 분장하고 등장하여 노래한다) .....저는 龍濟山の 道妙靈仙(도교 경전 속의 신선)입니다. 저는 이 산에서 1,100여 년 동안 늘 불경과 불법을 들어 불교의 심오한 뜻을 깨달았습니다. ....

(수공선사): 이 원숭이는 비록 佛門과 인연을 지녔건만 인간으로서 살

19) 李惠綿, 「論析元代佛教度脫劇」, 『佛學研究中心學報』, 第6期, 臺灣, 2007.

지 못해 속세를 벗어나 극락세계에 오르기 힘들구나. 이 원숭이가 혹 經文을 찢고 佛像을 훼손시킬까 두려우니 그로 하여금 景頭를 보게 하면 반드시 크게 깨달으리라. 자아! 山神은 어디에 있는가?

(外가 山神으로 분장하고 등장): .....저는 이곳의 산신입니다. 祖師님께서 부르시니 무슨 분부이신지 모르겠네요.

(수공선사): 산신은 내 명령을 들어라. 佛堂 내에 검은 원숭이가 내 경전을 엿보고, 내 袈裟를 입으니, 네가 그를 한 번 혼내주라. 이 원숭이는 나중에 반드시 正果(得道)를 이룰 것이니 그를 해치지는 말아라. ....

(산신): 이 놈 못된 축생아, 무례하게 굴지 말아라. 어찌 감히 우리 法堂에 와서 장난치고, 佛殿에서 노니느냐.....

(산신이 칼을 어루만지며): 너는 어찌 감히 네 멋대로 이곳에 왔느냐?.....

(산신): 못된 축생이 무례함을 참을 수 없구나. 이리저리 이 佛殿에서 나오지 않으니 내가 직접 잡아야겠다.(잡는 동작을 하다)(정말이 노래한다)

【採茶歌】 산신이시여 용서해주세요. 놀라 혼이 날라 가는구나. 다시는 僧房과 佛殿에서 노닐지 않겠어요. 내 이 목숨 한 순간 죽여 버리면, 어떻게 天宮에 올라가 瑤池에서 신선한 과일을 현상할 수 있을까?

(산신): 본래 마땅히 죽어야 하는데, 하늘이 큰 덕을 지녀 너를 용서하니, 다시는 여기에서 장난치지 말아라.(正末扮猿猴上, 唱)..... (云)小聖乃是龍濟山中一个道妙靈仙是也. 我在此山中千百餘年, 常只聞經聽法, 推悟玄宗.....(禪師云)此猿雖有善緣, 未居人類, 難以超升. 此猿恐怕他扯碎了經文, 毀傷了佛像, 我着他見个景頭, 必然大悟也. 疾! 山神安在 (外扮山神上).....小聖本處山神是也. 祖師師喚, 不知有何法旨.(禪師云)山神聽吾法旨: 你看禪堂內玄猿窺我經典, 着我袈裟, 汝可驚嚇他一回; 此猿以後必成正果, 慎勿傷害. ....(山神云)兀那業畜, 休得無禮. 怎敢來俺法堂作戲, 佛殿嬉游也.....(山神按劍科云云)你怎生敢擅來此處也. ....(山神云)巨耐業畜無禮. 百般的不出這佛殿來, 我親自捉拿.(做捉科)(正末唱)

【採茶歌】 告尊神且擔饒, 嚇得我五魂消, 再不敢僧房佛殿逞逍遙. 將我這性命登時間殺壞了, 怎能勾瑤池獻果到青霄. (山神云)本當殺壞了你, 上天尚有好生之德. 且饒過你罪, 再不許你在此作戲也)20)

위의 인용문에 의하면, 극 중의 주인공이며 피도탈자인 猿猴는 일반 원숭이가 아니라 본래 신선이던 원숭이로서, 인간 세계에 내려와 극의 무대인 龍濟山에서

20) 隋樹森編, 『元曲選外編』, 第三冊, 中華書局, 1987, 952-953쪽.

1,100여년이러는 아주 긴 기간 동안 佛經과 佛法을 들어 이미 불교의 심오한 뜻을 깨달은 靈長類의 특별한 원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猿猴는 다만 인간으로서 태어나지 못해 극락세계에 오를 수 없는 안타까운 처지이다. 그런데 이 猿猴가 아무도 없는 빈 法堂에 들어와 함부로 노닐자, 도탈자인 수공선사는 원후가 經文을 찢고 佛像을 훼손시킬 것이 두려워 그를 혼내고자, 도탈극에서 자주 사용하는 景頭의 수법을 사용한다. 景頭는 境頭 혹은 鏡頭라고도 하는 것으로, 비현실적인 幻境이나 夢境을 가리키는 용어이며, 「忍字記」나 「度柳翠」 및 「東坡夢」과 같은 도탈극에서 도탈자가 피도탈자를 도탈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특수 수법이다. 곧 도탈자는 현실 속에서 피도탈자가 자신의 요구에 부응하지 않을 경우, 비록 비현실적이지만 무서운 고통을 동반하는 상황을 피도탈자가 체험하도록 하여 도탈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끈다. 그리하여 극 중에서는 비록 비현실적인 내용이지만 또다른 극이 연출되니, 일종의 극 중의 극이라는 수법이 동원되어 일정한 공연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위의 인용문에서는 도탈자인 수공선사가 龍濟山의 山神을 부르는 景頭의 수법을 사용하여 피도탈자인 원후로 하여금 죽음의 고통을 느끼도록 하여 佛法을 크게 깨닫도록 만든다.

극 중의 주인공이 축생의 신분으로 등장한 것은 불교의 기본적인 세계관과도 연관된다. 그것은 극 중 주인공이 축생의 신분과 인간의 신분으로 바뀌가며 輪回하듯이 등장하는 특수한 수법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불교의 핵심적인 세계관에는 十法界가 있다. 십법계는 衆生의 세계인 天上·人間·阿修羅·畜生·餓鬼·地獄의 여섯 가지 迷界와 깨달은 이의 세계인 聲聞·緣覺·菩薩·佛의 네 가지 悟界가 있으며, 속칭 四聖六凡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십법계는 生命의 존재양식으로서, 하나의 생명이 어느 세계에 머무르는가는 오로지 각각 생명의 修行 정도에 따라 구분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제2절의 극 중에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원후는 깨닫지 못한 중생의 세계에서도 畜生이라는 수행이 낮은 단계의 생명에 속해 최종 목표인 해탈에 이르기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

위의 인용문 내용을 통과외례 중 전이의례의 관점에서 보면 극 중의 상황이 전이의례의 일반적 상황과 비슷하다. 곧 위의 인용문은 전이의례의 핵심적 특성인

고통의 시련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다른 대부분의 도탈극과 마찬가지로, 위에서도 도탈자가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피도탈자에 대하여 강한 공포를 느끼게 하는 景頭의 수법을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위의 극 중에서 비현실적인 景頭의 수법에 등장한 山神은 무서운 칼을 어루만지면서 피도탈자인 원후에게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하였으니, 주인공인 원후는 너무나 무서워 혼이 사라지는 듯한 고통을 감수하였다. 그러면 피도탈자가 도탈과정 중에 감당해야 하는 이러한 고통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엘리야데는 그의 『신화·꿈·신비』에서 통과 의례에서의 고통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모든 전통사회에서 고통은 의례적인 가치를 갖는다. 고문은 초인적 존재에 의해 실행된다고 간주되며, 희생자의 영적인 변모에 그 목적이 있다. 고문은 그 자체가 가입의례를 통한 죽음의 경험이다. 고문을 당하는 것은 가입의례의 악마-스승에 의해 조각 조각 해체되는 것, 달리 말해 사지 절단으로 죽음에 놓여지는 것을 의미한다. ……육체적 고통에 대한 종교적 가치 부여는 또 다른 사실들에 의해 확인되었다. ……정신적 고통과 마찬가지로 육체적 고통은 모든 가입의례에 필요불가결한 고문과 유사하다. ……매번 더 높은 곳으로 이르기 위해 존재방식을 초월하게 되고,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매번 영적으로 변화하는 것이다.<sup>21)</sup>

위에서 엘리야데는 통과의례 중 주로 전이의례에서 행하여지는 고통을 종교론적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그는 고통이 그 자체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례적인 가치를 가지고, 초인적 존재에 의해 실행된다고 간주되며, 고통의 실행 목적이 통과 의례 참가자의 영적인 변모에 있다고 보았다. 곧 엘리야데는 위에서 전이의례 중의 고통에 종교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있으며, 통과 의례의 참가자가 더 높은 곳으로 이르기 위해,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변화하기 위하여 고통은 필수불가결함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불교도탈극인 「원청경」의 제3절에는 극 중의 본래 주인공이던 猿猴가 다시 인간의 몸으로 변신하며, 제1절의 樵夫와는 달리 科擧에 급제하여 功名을 이

21) M. 엘리야데 저, 강유섭 역, 『신화·꿈·신비』, 도서출판 숲, 2006, 252-255쪽.

문 文人인 袁濤이 관리인 秀士의 신분으로 극 중의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袁濤은 제3절의 초반부에서 자신이 과거의 甲科에 급제하여 임금과 함께 국사를 논의하고, 임금이 준 御酒를 마시며, 富貴功名을 누리던 榮華롭던 시기를 노래한다. 그러나 관리로서의 이러한 황금시기는 그에게 얼마 지속되지 못하고 곧 삶의 큰 고통이 찾아온다. 곧 정치환경이 혼란해지자 그의 관리생활이 기구하게 되며, 그는 친구의 추천으로 변방의 작은 관직을 맡았지만, 부임한지 1년도 되지 않아 妻妾과 子女들이 모두 죽게 되는 큰 시련을 당한다. 그리하여 피도탈자의 신분인 그는 제1절의 樵夫가 그렇게도 바라던 부귀공명을 버리기로 결심하고, 자발적으로 극 중의 무대인 龍濟山을 찾아 도탈자인 수공선사를 만나 佛法에 귀의하겠다는 강렬한 욕망을 전달한다. 이에 도탈자인 수공선사는 佛法에 귀의하겠다는 피도탈자인 袁濤의 강한 결심을 확인하고 나서, 자신의 行者와 僧房을 함께 사용토록 하여, 袁濤이 修行에 전념하도록 시키면서 제3절은 끝을 맺는다.

위와 같은 「원청경」 제3절의 내용은 통과이레 중 전이의레의 관점에서 보면 또 다른 삶의 고통이 연속되는 고통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위에서 엘리아데가 지적한 바와 같이 종교론적 제의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불교적 인생관에 의하면, 이러한 죽음의 고통은 八苦 중의 하나인 死苦이며, 가족들의 죽음은 그 중에서도 가장 커다란 고통을 가져오는 것이다.

불교도탈극인 「원청경」의 정점은 제4절에서 나타난다. 극 중 용제산에서 行者와 함께 修行에 전념한 피도탈자인 袁濤은 도탈자인 수공선사의 도움을 받아 불교의 교리와 생명의 이치에 대해 깊이 깨달으며, 새로운 존재양식을 향한 해탈의 과정에 들어간다. 그러면 원문을 중심으로 그러한 도탈과정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살펴보자.

(袁濤): 사부님께 여쭙니다. 무엇이 妙法입니까?

(수공선사): 입을 다물고 있는 것.

(袁濤): 무엇이 如來의 法입니까?

(수공선사): 49년 동안의 300여 차례의 법회.

(袁濤): 무엇이 祖師의 法입니까?

(수공선사): 9년 동안 말하지 않으나, 명성이 온 세계에 떨친다. ....

(袁遜): 스승님, 偈言으로 저를 點化<sup>22)</sup>시켜 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 오늘 자리에서 또 여러 진리의 말씀을 받아 축생의 마음을 點化시켜 주셨으니, 정말로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

(수공선사): 형체가 없고 모양도 없으며 모든 존재는 실체가 없지. 본 모습이 如來이고 반야(지혜)는 같도다. 만약 여러 인연 모두 내려놓으면, 모두들 부처님 머리 위에 있게 되리라.

(袁遜): 제가 이해했습니다. ……가는 것도 없고 오는 것도 없으며, 마음의 꽃에는 다섯 잎이 피었네. 속세의 인연 모두 내려놓으면, 正果를 證得<sup>23)</sup>하여 蓮座臺에 자리하리.

(袁遜이 坐化하자 行者가 말하길): 사부님, 袁手才가 坐化하여 歸空했습니다.

(수공선사): 아! 내 말을 듣고 곧바로 玄妙한 진리를 크게 깨달아 歸空할 줄 누가 생각했는가? 내가 그를 위해 친히 불을 지펴야겠다.(正末云) 敢問我師, 如何是妙法? (禪師云) 合着口. (正末云) 如何是如來法? (禪師云) 四十九年三百餘會. (正末云) 如何是祖師法? (禪師云) 九年不語, 聲振五天. …… (正末云) 多謝禪師, 偈言點化 …… 今日座下, 又蒙眞詮數語, 點化獸心, 其實的參透得淨也. …… (禪師云) 無色無相萬法空, 體自如來般若同. 若把諸緣都放下, 俱在毗盧頂上峰. (正末云) 徒弟省了也. …… (云) 無去亦無來, 心花五葉開. 塵緣都放下. 位正寶蓮臺. (做坐化科, 行者云) 師父, 看袁秀才坐化歸空去了也. (禪師云) 哎, 誰想此人言下大悟眞機, 歸空去了. 貧僧就與他親身下火.)<sup>24)</sup>

위의 인용문에서 피도탈자로서 秀士의 신분인 袁遜은 자신의 스승이자 도탈자인 수공선사와의 問答을 통하여 불교의 이치를 깨닫는다. 먼저 위에서 袁遜이 불교의 妙法과 如來法 및 祖師法을 수공선사에게 묻자, 수공선사는 佛德을 칭송하거나 佛理를 서술하는 짧은 偈言을 사용함으로써 대답을 하는데, 이는 禪宗에서 말하는 機鋒의 수법이다. 機鋒은 창이나 칼 따위의 날카로운 끝부분처럼, 禪僧들이 대화할 때 사용하는 예리한 언어를 의미하는데, 이를 사용하여 상대방이 깨닫도록 한다. 그런데 이러한 기봉의 수법은 일반적인 이성사유 원칙을 초월하여 일종의 비논리성을 지니며, 듣는 이로 하여금 당장 깨닫게 하는 신기한 효과를 일으

22) 본래는 신선이 法術을 사용하여 사물을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하였는데, 후에는 도사나 승려가 언어를 사용하여 사람을 깨우쳐 道를 깨닫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23) 불교에서 바른 지혜로써 진리를 깨달아 얻음을 가리키는 말.

24) 隋樹森編, 『元曲選外編』, 第三冊, 中華書局, 1987, 958-959쪽.

킨다.<sup>25)</sup> 위의 인용문에서도 피도탈자인 袁遜은 도탈자인 수공선사의 이러한 기봉으로 인하여, 자신이 불교의 이치를 빠르게 깨닫게 되는 頓悟的 點化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또한 위에서 수공선사는 불교의 핵심 이치를 7言詩로써 노래하였으니, 無色과 無相 및 空이라는 불교를 대표하는 핵심 용어들을 동원하여 불교의 이치를 말한다. 이에 피도탈자인 袁遜은 즉시 그 내용을 이해하고, 자신의 마음속으로 이미 다섯 잎과 같은 선종의 5家<sup>26)</sup>를 이해했으며, 자신이 解脫을 證得하여 부처나 보살이 앉는 蓮座臺에 자리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도탈자인 원손의 해탈은 일순간에 이루어졌으니, 그는 앉아서 入滅하는 坐化의 모습으로 번뇌와 육신을 소멸하고 涅槃의 경지에 들어갔다.

통과의례 중 전이의례의 관점에서 보면, 극 중 주인공의 죽음은 전이의례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과 부합된다. 사실 전이의례에서 이제까지 행하여졌던 모든 고통과 고난 등의 시련은 모두 전이의례 주인공의 죽음을 위한 준비과정에 불과한 것이다. 다만 현실 속의 통과의례에서는 참가자가 실제 죽어서는 안 되므로, 단지 상징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의식을 행하였지만, 불교도탈극인 「원청경」에서는 극 중의 주인공이 육신의 죽음에 이름으로써 극의 정점을 이루고 있다. 그러면 전이의례의 과정 중에 보이는 죽음은 무슨 의미를 지니는가? 엘리야데는 그의 저서 『성과 속』 및 『신화·꿈·신비』에서 전이의례 과정 중 나타나는 죽음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종교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가입식의 각본-세속적인 조건에서는 죽고 그 다음에 성스러운 신들의 세계에서 재생하는-은 고도로 발달한 종교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유명한 예는 인도의 제의에서 볼 수 있다. 그 목표는 사후에 천상으로 올라가 신들과 더불어 살거나 神性을 획득하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제의를 통해서 사람들은 초인간적인 존재양식을 획득한다.<sup>27)</sup>

가입의례의 죽음은 되풀이되며 결코 끝이 아니다. 어떤 의례나 신화도 가입의례에서의 죽음으로 결말을 맺지 않는다. 또 다른 존재방식을 향한

25) 楊毅, 『宗教與戲劇的文化交融』, 福建師範大學博士學位論文, 2005, 128쪽.

26) 중국의 선종에서는 達磨大師를 一花라고 하고, 임제종(臨濟宗), 위양종(滄仰宗), 조동종(曹洞宗), 운문종(雲門宗), 법안종(法眼宗)의 소위 선종오가(五家)를 五葉이라 한다.

27) M. 엘리야데 저, 이은봉 역, 『성과 속』, 서울: 한길사, 1998, 178쪽.



통과의 필수불가결한 조건으로서의 죽음을 만날 뿐이다. 재생하기 위해, 다시 말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필요불가결한 시험인 것이다. …… 가입의례를 통한 탄생은 세속적인 존재에게 죽음을 내포했다. 도식은 불교에서처럼 힌두교에서도 보존되었다. 요가수행자는 다른 존재방식으로 재탄생하기 위해 ‘이 생에서 죽었다’ 그것은 해방에 의해 구현된다. 붓다는 자유, 지복과 열반의 무제약상태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세속적인 인간조건, 즉 노예 상태와 무지함에서 죽는 방법과 수단을 가르쳤다.<sup>28)</sup>

위의 인용문에서 엘리아데는 통과의례 중 참여자의 죽음은 다른 존재양식으로 재탄생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과정이며, 세속적인 조건에서는 죽고 성스러운 신들의 세계에서 재탄생하는 목적은 죽음 이후 천상으로 올라가 신들과 함께 살거나 神性を 획득하는 것이라고 여겼다. 그리하여 엘리아데에 의하면, 통과의례의 과정 중에 나타나는 죽음은 초인간적인 존재양식을 획득하는 것에 목적과 의미를 지니며, 일례로 붓다는 자유와 지복과 열반이라는 해방의 상태로 재탄생하기 위해 세속적인 인간조건에서 죽는 방법을 가르쳤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통과의례 중의 죽음은 결국 재탄생을 위한 필수 과정에 불과하며, 출생과 죽음 및 재탄생이라는 세 가지는 결코 분리되어 논의할 수 없는 것이다.

#### 4. 통합의례

통합의례는 통과의례의 마지막 단계로서, 분리의례와 전이의례를 거친 참가자들이 다시 공간이동을 하여 원래의 사회로 통합되는 의례이다. 다만 중요한 점은 통합의례의 참가자가 이미 전이의례의 단계에서 많은 고통과 죽음 등의 시련을 거쳐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하여 원래의 사회로 통합된다는 것이다. 빅터 터너에 의하면, 통합의례의 제의적 주체들이 전체 사회 속에서 상대적으로 새롭고 안정되고 분명한 위치로 되돌아감을 나타내주는 상징적인 현상들과 행동들을 포함한다. 이 삶의 주기적 제의를 지탱하기 위해서, 이 단계는 대개 어떤 향상된 지위, 즉

28) M. 엘리아데 저, 강유섭 역, 『신화·꿈·신비』, 도서출판 숲, 2006, 272-276쪽.

문화적으로 이미 형성되어 있는 삶의 도정에서 좀 더 나은 하나의 단계를 표상한다.<sup>29)</sup> 그러면 이러한 통합의례가 불교도탈극인 「원청경」에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원문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聖僧<sup>30)</sup>인 阿羅漢 등장) ..... 저는 서방 극락세계의 아라한입니다. 오늘 盧陵郡 龍濟山의 1,000년 된 검은 원숭이가 늘 修公禪師에게서 불경을 듣고 불법을 듣더니 분명하게 불법을 크게 깨달고, ....., 坐化하여 正果를 證得해 歸空하였습니다. 제가 여기서 그를 기다리니, 조만간 오겠지요.

(袁遜): 저는 1,000년 된 검은 원숭이인데, 袁遜이라는 인간의 이름을 사용했지요. 사찰의 수공선사에게서 불교에 대해 묻고는, 말씀 한 마디에 크게 깨달아 坐化하여 肉身을 소멸했지요. 보세요, 金童이 저를 맞이해 주고, 玉女가 뒤따르니, 과연 멋진 세계이네요. ....

(聖僧): 袁遜, 그대 왔구나.

(袁遜): 제자 왔습니다. 인사드립니다.

(聖僧): 그대가 迷妄된 것을 버리고 진실된 것을 추구하며, 佛果를 얻게 되는 原因인 菩薩行을 많이 닦아, 오늘 근본의 진리 세계로 되돌아 왔으며, (극락세계 최고의 자리인) 九品 蓮座臺에 자리하게 됐도다.

(袁遜): 누가 오늘을 생각했겠는가? ((聖僧羅漢上) 貧僧乃西天阿羅漢是也. 今日盧陵郡龍濟山中. 一個千載玄猿, 常與修公禪師聽經聞法. 了然大悟, .....坐化, 正果歸空. 僧在此待候他, 這早貧晚敢待來也. (正末上, 云) 小生千載玄猿, 托名袁遜, 自于寺中修公祖師座下聞罷禪, 一言大悟, 坐化身亡. 你看金童引接, 玉女相隨, 果是好境界也. .... (聖僧云) 袁舜夫, 你來了也. (正末云) 你徒弟來了也. 稽首. (聖僧云) 只因你舍妄求真, 修因果行, 今日返本歸真, 位至西方九品蓮池地步. (正末云) 誰想今日呵.<sup>31)</sup>

위의 인용문에서 극 중의 주인공으로 피도탈자인 원손은 도탈자인 수공선사의 도움으로, 자신이 본래 속해 있던 신성한 세계인 聖界로 되돌아온 것을 매우 감탄해 하고 있다. 먼저 신성한 세계에서 그를 맞이한 것은 아라한이다. 아라한은 소승 불교에서 수행자가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단계로서, 迷妄한 세계를 벗어나 生死의 輪回를 넘어선 깨달은 자이다. 곧 극 중의 원손이 이러한 아라한과 함께 지내는

29) 빅터 터너 지음, 김익두 옮김, 『제의에서 연극으로』, 서울: 현대미학사, 1996. 41쪽.

30) 불교에서 正果를 證得한 高僧을 가리키는 말.

31) 隋樹森編, 『元曲選外編』, 第三冊, 中華書局, 1987. 959-960쪽.

것은 그가 최고의 해탈을 이룬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러한 이유로 원손은 서방의 극락세계에서도 修行의 정도가 가장 높은 자가 차지할 수 있는 九品の 蓮座臺에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 그런데 위의 인용문에는 「원청경」이 불교도탈극임에도 불구하고 道敎의 용어들이 보이니, 金童과 玉女가 바로 그것이다. 기실 금동과 옥녀는 도교에서 神仙을 옆에서 모시는 천진무구한 아이들이다. 이렇듯 불교도탈극에서 도교 용어들이 사용되는 것은 흔하게 보이며, 인도에서 전래된 중국의 불교가 발전하는 과정 중에 도교와 유교의 영향을 받아 세 종교가 융합되는 三敎合一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sup>32)</sup>

통과의례 중 통합의례의 관점에서 보면, 위의 인용문에 나타난 극 중의 내용은 통합의례의 일반적 성격과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극 중의 주인공인 猿猴는 피도탈자의 신분으로서 비록 인간의 명의를 기탁했지만, 그는 결국 도탈자의 도움을 받아 자신이 본래 속했던 신성한 세계로 복귀하였다. 그리고 그는 해탈이라는 방식으로 서방의 극락세계에 도달하여, 수행의 정도가 가장 높은 자가 앉을 수 있는 九品の 蓮座臺에 자리를 잡았으니, 이러한 점은 통과의례 중 통합의례의 일반적 성격과 부합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해탈을 통한 통합의례는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엘리아데는 그의 『성과 속』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대다수의 고대 종교들에서 飛翔은 초인간적인 존재(신, 주술사, 정령) 양식으로의 접근, 결국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자유, 영의 조건 그 자체의 획득을 상징한다. 인도 사상에서 아라한은 ‘집의 지붕을 깨뜨리고’ 공중으로 비상하는 것을 통하여 우주를 초월하여 어떤 역설적이고도 불가사의한 존재 양식, 즉 절대적 자유의 존재 양식-니르바나(열반).....등 여러 가지 명칭을 가지고 있더라도-에 도달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신화적 차원에서 이와 같은 세계 초월의 모범적 행위는 붓다가 우주의 달걀, “무지의 껍데기”를 “파괴하고” “지복의 보편적인 붓다의 존엄”을 획득하였다고 하는 그의 선언으로 설명되고 있다.<sup>33)</sup>

위의 인용문에서 엘리아데는 대다수 고대 종교에서의 영혼의 비상은 신과 같은

32) 楊毅, 『宗教與戲劇的文化交融』, 福建師範大學博士學位論文, 2005, 238쪽.

33) M. 엘리아데 저, 이은봉 역, 『성과 속』, 서울: 한길사, 1998, 163쪽.

초인간적인 존재로 접근하여 절대적 자유를 향유하는, 영의 조건 그 자체의 획득을 상징한다고 여겼다. 그리고 그는 불교의 이라한을 예로 들어, 인도 사상에서의 이라한은 공중으로의 비상을 통하여 어떤 역설적이고도 불가사의한 존재양식, 곧 해탈을 통한 열반과 같은 절대적 자유의 존재양식에 도달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엘리야데의 종교론적인 관점에서 볼 때, 불교도탈극인 「원청경」에서 극 중의 주인공인 猿猴가 해탈하여 극락세계에 도달했다고 하는 것은, 그가 세속의 온갖 번뇌에서 해방되어 절대적 자유를 획득함을 의미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 5. 결론

원잡극 「원청경」은 제재와 내용이 독특한 불교도탈극으로, 피도탈자로서 주인공인 猿猴가 나무꾼인 樵夫와 관리의 몸으로 변신을 하면서 등장하며, 도탈자인 수공선사의 설법을 듣고 크게 깨달아 해탈하여 극락세계에 도달한다는 종교극이다.

통과의례라는 용어는 민속학자인 겐넵이 처음 사용하던 것으로, 그에 의하면 인간은 자신의 탄생과 결혼 및 죽음 등의 중요한 시기에 사회 내에서의 신분변화와 새로운 역할을 획득하는 과정 중에 일정한 의례를 행하는데, 그는 이것을 통과의례라고 불렀다. 그런데 불교도탈극인 「원청경」은 그 도탈구조에 있어서 통과의례와 매우 비슷하였다. 이들은 구조상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단계가 서로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었다.

통과의례의 첫 번째 단계인 분리의례는 불교도탈극인 「원청경」의 도탈구조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극 중의 주인공인 猿猴는 畜生으로 본시 신성한 天宮에서 살았으나, 西王母가 있던 瑤池에서 瓊漿酒를 흠쳐 마시고, 3,000년에 한 번씩 열리는 蟠桃를 흠쳐 먹으면서 소동을 일으켜 세속의 인간 세상으로 추방되었다. 이러한 점은 통과의례의 참가자가 새로운 재탄생을 위해 원래의 지역에서 다른 곳으로 분리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 「원청경」의 극 중 주인공이 통과의례의 분

리의례처럼 새로운 재탄생을 위하여 공간이동을 한 것이다.

불교도탈극 「원청경」의 도탈구조는 피도탈자인 원후가 도탈자인 수공선사를 만나 고통과 죽음 등 여러 가지 시련을 거치면서 해탈하는 과정이 핵심인데, 이러한 점은 통과례 참여자가 수많은 고통과 상징적 죽음을 당하는 전이의례의 과정과 비슷한 양상을 보여준다.

먼저 제1절에서 「원청경」의 극 중 주인공 원후는 유교 경전을 열심히 공부하였으나 부귀공명을 이루지 못한 나무꾼으로 등장하여 자신의 고통을 노래하였다. 불교적 인생관에 의하면 樵夫의 이러한 고통은 자기가 뜻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여 발생한 求不得苦로서, 소위 八苦 중의 하나이다.

제2절에서 원후는 자신의 본 모습으로 등장하여 佛堂에 들어가 불교 經文을 읽고 스님의 袈裟를 입어 보기도 하면서 自力 解脫에 힘쓰지만, 도리어 도탈자인 수공선사에게 쫓겨나면서 무서운 景頭의 수법을 당한다. 그는 비록 현실이 아닌 景頭의 수법을 당하지만, 山神에게 칼로써 하마터면 죽을 뻔한 무서운 고통을 당하였다.

제3절에서 원후는 다시 과거에 급제한 관리로서 등장하여 한 동안 임금의 御酒를 마시는 등 부귀공명을 누린다. 그러나 이러한 부귀공명은 오래 가지 못하고, 정치환경이 열악해지자, 그는 변방의 관리로 부임했으며, 1년이 가지 못해 자신의 妻妾과 子女들이 모두 죽는 커다란 고통을 겪는다. 그런데 「원청경」의 주인공이 겪는 이러한 여러 가지 고통은 통과례 중의 참여자가 겪어야 하는 고통과 비슷한 의미를 지닌다. 고통은 고통 그 자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례적인 가치를 가지며, 모두 주인공 원후의 재탄생을 위한 준비과정이다.

제4절에서 극 중의 주인공 원후는 도탈자인 수공선사와의 問答을 통하여 불교와 생명의 진의를 頓悟적으로 크게 깨닫고 坐化하여 入滅한다. 극의 정점은 죽음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이것은 통과례의 정점에서 참여자가 상징적으로 죽는 것과 거의 똑같은 양상과 의미를 지니고 있다. 불교도탈극 「원청경」의 주인공과 통과례 참여자의 죽음은 모두 신들의 세계에 진입하고자 하는 준비과정이었다. 곧 이들의 죽음은 또 다른 존재양식을 향한 재탄생을 위하여 준비된 것이다.

통과의례의 마지막 단계인 통합의례의 과정도 「원청경」의 제4절에서 비슷하게 보인다. 「원청경」의 주인공인 원후는 坐化 이후 세속의 세계에서 신성한 극락세계에 다시 되돌아갔다. 결국 그는 聖界-俗界-聖界로의 공간이동을 하였다. 그리고 그는 철저한 해탈로 인하여, 극락세계에서 부처나 보살이 앓을 수 있는 九品の蓮座臺에 자리할 수 있었는데, 엘리아데에 의하면, 이렇듯 신성한 세계로의 비상은 절대적 자유를 추구하는 새로운 존재양식의 획득을 상징한다.

#### 〈參考文獻〉

- 溫小騰, 「淺析元雜劇中的度脫劇」, 『大慶師範學院學報』, 第26卷 第4期, 2006.
- 李惠綿, 「論析元代佛教度脫劇」, 『佛學研究中心學報』, 第6期, 臺灣, 2007.
- 曹國榮, 「元雜劇佛禪義理芻議」, 『社科縱橫』, 第22卷 8期, 2007.
- 荏攀, 「試論元代佛教雜劇中的禪宗文化」, 『連雲港職業技術學院學報』, 第22卷 2期, 2009.
- 羅永忠, 「試論元雜劇佛道劇中對佛教道教的批判」, 『全國中文核心期刊 藝術百家』, 第3期, 2003.
- 鄭傳寅, 「論元雜劇中的佛教劇」, 『武漢大學學報』, 第66卷 1期, 2013.
- 陳洪, 「元雜劇與佛教」, 『文學評論』, 2005年 6期.
- 福滿正博, 「試論元雜劇中的度脫劇」, 『戲曲研究』, 第46輯, 文化藝術出版社, 1993.
- 毛小雨, 「元雜劇中佛教戲研究」, 『戲曲研究』, 第31輯, 文化藝術出版社, 1989.
- 楊毅, 『宗教與戲劇的文化交融』, 福建師範大學博士學位論文, 2005.
- 青木正兒 著, 隋樹森譯, 『元人雜劇序說』, 臺灣, 長安出版社, 1976.
- A 반 진넨 著, 金京秀 譯, 『통과의례』, 서울: 을유문화사, 1994.
- M. 엘리아데 저, 이은봉 역, 『성과속』, 서울: 한길사, 1998.
- 빅터 터너 지음, 김익두 옮김, 『제의에서 연극으로』, 서울: 현대미학사, 1996.
- 容世誠 著, 『戲曲人類學初探』, 北京: 光西師範大學出版社, 2003.
- 王學奇 主編, 『元曲選校注』, 石家莊: 河北教育出版社, 1994.

## 〈中文提要〉

「猿聽經」是佛教度脫劇。作品的核心內容是被度脫者猿猴用自力解脫和度脫者的幫助來度脫的故事。在元雜劇的諸多劇種中，度脫劇算得上是一個獨特的劇種。雖然所占比例不大，受到關注不多，但具有相當的代表性，置得進一步深入研究。提到度脫劇，人們常常聯想到神仙道化劇。其實，二者之間確實連系緊密但不能同等。度脫即超度解脫之義，它本是佛家用語，指超度解脫萬物有情生死苦厄之意。日本青木正兒在『元人雜劇序說』中最先使用度脫劇一名。現存約150多種元雜劇作品中，度脫劇約占十分之一左右。其中道教度脫劇13種，佛教度脫劇4種，「猿聽經」是佛教度脫劇中的一個。

「猿聽經」是元代無名氏之作。一般來說，度脫儀式都包含三個階段，也就是分離階段-轉移階段-統合階段。也就是說整體度脫過程等於通過儀禮的三個階段。「猿聽經」也是一樣，所以本文用通過儀禮的觀點來分析度脫劇「猿聽經」的度脫過程和其意義。

第一階段是分離儀禮。作品中的被度脫者猿猴從神聖的世界分離出來。它本來住在天上，可是它偷吃了蟠桃，所以被驅逐到世俗的人間世界。這象徵著神聖的死亡。

第二階段是轉移儀禮。作品中的大部分情節都屬於轉移儀禮。在轉移儀禮的過程中被度脫者猿猴變化為兩種人間。首先在這個過程中被度脫者猿猴變化為樵夫。可是他忍耐不住樵夫的生活。他的生活充滿著痛苦。在第二折它以原來的身分出現。它努力用自力解脫。可是它的努力沒有成功。度脫者修公禪師這時讓它受到強烈的痛苦。這時度脫者修公禪師利用夢幻的手段來度脫猿猴。其中景頭的手段是代表的手段。在這樣的過程中被度脫者猿猴歷很多痛苦和試煉。在第三折，猿猴變化為官吏。可是他的官吏生活不順利。他的妻妾子女都死了。他忍耐不住這樣的痛苦和試煉，以後決心歸依佛法的世界。以後他通過修公禪師的幫助得道解脫。然後一瞬間坐化。這是作品的絕頂部分。在這樣的過程中，常常出現死亡的過程。度脫劇中被度脫者的死亡是必然性的。沒有死亡就沒有度脫。被度脫者通過死亡來獲得神聖的存在樣式。死亡和再誕生是度脫劇的核心內容。而且這樣的內容常常用象徵的手段來表現。

第三階段是統合一儀禮。被度脫者猿猴的死亡試煉就是統合一儀禮的開始。他通過世俗的死亡象徵來獲得宗教的神性。在這樣的情況下，猿猴終於歸到原來的神聖世界。

關鍵詞：「猿聽經」，度脫劇，通過儀禮，分離儀禮，轉移儀禮，統合一儀禮

200 中國文化研究 第31輯

이 논문은 2016년 1월 5일에 접수되어 2016년 2월 11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6년 2월 11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